



Mennonite
Mission
Network

The mission agency of
Mennonite Church USA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

What is an Anabaptist Christian?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파머 베커 지음 · 김복기 옮김



What is an Anabaptist Christian?

Copyright © 2008 by Mennonite Mission Network,

PO Box 370, Elkhart, IN 46515-0370.

What is an Anabaptist Christian?, Palmer Becker.

Korean Copyright © 2009 by Korea Anabaptist Press.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Korea Anabaptist Press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의 승인 없이 이 책의 내용이나 표지 등을

복제 인용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아나뱃티스트 출판사(Korea Anabaptist Press)는 기독교 신앙을 아나뱃티스트 관점에서 소개하는 문서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기초를 재 세례신앙의 제자도, 평화,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경적 비전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아나뱃티스트 출판사가 발행하는 도서는 각 분야별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자 서문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누가복음 4:18)

이 성경 구절은 많은 신학자들이 메시아 선언이라 인정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은 늘 나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만큼

올바로 실천하고 있는지 질문하도록 만든다. 과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교회가 이 메시아적 선언을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모든 사람을 초청한다. 가난한 사람, 포로 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과연 지금 기독교와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초청하고 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접하고 있다. 기독교 영성, 공동체, 크리스천으로서의 성공, 교회 성장, 리더십 등 수많은 책들을 접하고 있다. 여전히 이러한 책들은 복음을 통해 한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기독교 서적은 가진 자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 특히 기독교 역사나 교회는 가진 자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기독교에는 대안 역사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류의 역사에서 보면 아나뱃티스트의 역사는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잠시 자리하다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존재일 뿐이다.

기독교 역사는 제도로서의 교회 역사였고, 교리를 발전시킨 교리의 역사였고,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는 정복의 역사였고, 유명한 교회 지도자에 관심이 집중된 영웅의 역사였고, 일상의 생활보다 거룩한 예배와 예식을 발전시킨 집회 중심의 역사였다. 그래서 제도 밖의 크리스천과 회중의 모임은 늘 소외되었고, 성경의 말씀도 교리를 통해 재단되어 왔다. 몇몇 교회사에 언급되어 있는 영웅들의 가르침은 공동체의 가르침보다 소중하게 여겨짐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모습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교회의 정규적인 모임 외의 소그룹 모임은 때때로 위험스러운 모임으로 규정되었고, 소그룹 모임도 교회의 치리 안에 있어야 안전한 모임이 되었다. 지금도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교회의 역사가 주류의 역사일 수밖에 없음을 자랑하고 있다.

교회의 기억이나 크리스천들의 행태는 이 땅 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보다는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제도나 기관의 목적을 충족시키도

록 적절히 왜곡되어 있다. 성경읽기마저도 복음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가려져 왔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깨달은 말씀도 누군가의 권위를 통해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은 이러한 주류의 역사와는 시각이 다른 책이다. 그렇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왜곡된 채로 있을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비록 역사 속에서 복류천으로 흘러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었지만, 이제 땅속을 흐르던 거대한 물줄기가, 평화교회로, 회중교회로, 자유교회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역사의 도도한 강물 속에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재세례신앙 운동은 교회 운동이다. 16세기 이후에 초대교회를 다시금 완전히 복원해냈던 순교자들의 운동이다. 그 후예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여러 운동에 영

향을 끼쳤다. 조지 폭스와 웨이커 운동에, 경건주의 운동과 형제교회에, 존 웨슬리의 운동과 청교도 운동에, 침례교 운동과 교회 공동체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재세례신앙 운동의 시각으로 기독교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는 늘 있었다. 북미와 유럽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재세례신앙 운동과 교회들(메노나이트, 아미쉬, 후터라이트, 형제교회)이 한국에서도 서서히 알려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이다. 멘토로서, 교사로서, 강사로서 평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온 저자의 글을 한국에 소개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기쁨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작은 책자이지만,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오묘한지 볼 수 있는 책이길 원한다. 한국에 소개되지 않아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의 성경해석 방법과 역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세상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루신 이 땅 위의 선교가 가난한 사람, 포로 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아의 비전을 함께 바라본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심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Missional Church 시리즈로 출간된 이 한 권의 책이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대안적 시각을 제공하는 작은 촉매제가 되기를 기도하며…….

2009년 10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김복기

차례 ❶

•
•
•

5 역자서문

12 서론

20 제1핵심 내용

예수의 우리 신앙의 중심이시다

39 제2핵심 내용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다

56 제3핵심 내용

화해는 우리 사역의 중심이다

70 결론

74 토론을 위한 질문들과 관점들

80 읽을 자료

서론

재세례신앙의 정신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의 시작부터 존재해 왔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와 회중들은 재세례신앙 운동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재세례신자가 되는 것은 크리스천이 되는 길이다. 크리스천들 중에 성공회 신자들, 침례교 신자들 혹은 장로교 신자들이 있는 것처럼 재세례신자들이 존재한다.

‘아나뱃티스트(Anabaptist ; 재세례신자)’는 ‘다시 세례를

받은 사람들(rebaptizers)’이라는 뜻의 이름이다.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당시 관행으로 시행되고 있던 유아세례 대신에 신앙고백을 근거로 성인세례를 시도했던 크리스천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그들은 메노나이트 교회가 속해 있는 자유교회(the Free Church) 전통을 가진 크리스천들의 선조들이다.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크리스천들은 다른 신자들처럼 신앙에 있어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들은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으며, 회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예수의 신성과 인성, 성경의 권위와 영감,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된 신념과 더불어 다른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다.

재세례신자들은 때때로 제3의 종교 개혁가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사회적 격동기를 맞이하면서, 마르틴 루터, 율리히 츠빙글리, 그리고 존 칼빈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을 완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재세례신앙의 정신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일상생활에서 예수를 따르며,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당신은 재세례신앙의 정신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인가?

마르틴 루터는 믿음에 근거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아주 명확한 이해를 우리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콘스탄티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안한 사고방식과 믿음체계로 상황을 되돌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메노나이트 크리스천들 또한 16세기 재세례신자였던 메노 시몬스(Menno Simons)가 제시한 교리로 돌아가려는 비슷한 잘못을 범하기도 한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16세기의 문화 및 정세에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16세기의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잭 트라우트(Jack Trout)는 『다르게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Differentiate or Die*』라는 책에서 자신을 차별화시키려는 사람들과 조직을 위해 이것은 필수적인 질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어떤 조직이 다른 조직과 뭔가 다른 독특한 면이 없다면, 그 조직은 사멸하고 말 것이다.”라고 했다.¹⁾ 이와 유사한 내용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arvard Business Review*》에 실렸는데, 어떤 조직의 핵심이 되는 고유 가치는 ‘신성한(sacred)’ 것이며 이러한 신성한 것은 그 조직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내용이었다.²⁾

그렇다면 재세례신앙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신성한

1) Jack Trout, *Differentiate or Di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2000).

2) James C. Collins and Jerry I. Porras, "Building Your Company's Vision," in *Harvard Business Review* (Lewes, Del.: Harvard Business Publishing, September 1996).

가치들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소책자는 우리들의 믿음 (believing), 행동(behaving) 및 소속감(belonging)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설명으로서,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³⁾

그 핵심이란,

1. **예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Jesus* is the Center of our Faith)

2. **공동체**는 우리 생활의 중심이다.

(*Community* is the center of our lives.)

3. **화해**는 우리 사역의 중심이다.

(*Reconciliation* is the center of our work.)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은 미국 교회사회학회장이었던 헤

3) B로 시작되는 세 가지 가치는 알렌 크라이더(Alan Kreider)가 쓴 책의 내용을 그레이스 다비(Grace Davie)가 채택한 것이다. *The Change of Conversion and the Origin of Christendom* (Eugene, Ore.,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9), pp. xiv-xvi.

롤드 벤더(Harold Bender)가 1943년에 발표한 이래로 폭넓게 받아들여진 『재세례신앙의 비전 *The Anabaptist Vision*』의 21세기적 표현이기도 하다.⁴⁾ 헤롤드 벤더는 성경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설명하였다.

1. 기독교(Christianity)는 **제자도**(discipleship)이다.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2. 교회는 **형제됨**(brotherhood) 혹은 **가족**(family)이다. 교회 멤버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꺼이 서로에게 헌신해야만 한다.

3.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저항과 사랑의 윤리**(ethic of love and nonresistance)를 실천해야 한다. 변화의 주체로서 그들은 전쟁과 분쟁, 폭력을 거부하는 사랑의 윤리를 실천하고 화해를 추구한다.

4) Harold S. Bender, *The Anabaptist Vision*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44)

이 책은 이러한 핵심 가치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핵심가치들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설명해줄 것이다. 그리고 토론을 위해 서로 상반된 설명을 도표로 제시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나는 과연 재세례신앙의 정신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인가?”라는 질문에 부분적이거나 대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소책자가 출간될 수 있게 여러 도움을 준 태평양 남서부 메노나이트 지역의 제프 라이트(Jeff Wright) 목사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또한 아메리쿠스 메노나이트 펠로우십(Americus Mennonite Fellowship)의 다양한 멤버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 외 테오도르 웨더스(Theodore A. Weathers), 초고에서부터 사랑어린 비평을 아끼지 않은 여러 독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연구할 목적으로 내가 초기 아나뱃티스트들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한 것을 인정하며,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게 있음을 밝힌다.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은 내가 설명한 이 두 입장 사이 어느 부분에서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시다

Jesus is the Center of our Faith

예수(Jesus)께서는 주후 30년경 자신의 주변에 있는 한 그룹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목회를 시작하셨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일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폈다. 이 기간 동안 그리고 부활 이후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과 믿음

의 중심이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선생님이요, 구세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신자가 되거나 종교인이 되는 것 그 이상임을 의미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게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생활방식에서 그리스도처럼 되었다. 만약 당신이 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열정적인 목소리로 “예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시다!”라고 대답하였을 것이다.

약 250년 동안 이들 초기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온 두 부류의 사람들이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변화가 너무 커서 기독교가 아주 다른 모습의 종교가 될 만큼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⁵⁾ 그중 한 사람은 정치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신학자였다.

콘스탄티누스(Constantine)⁶⁾는 정치인이었으며 로마제국의 황제였다. 그는 예수에 대한 환상을 보고, 크리스천들을 박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313년 관용의 칙령을 반포하였다. 곧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일반 크리스천이 받는 훈련을 받지 못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예수의 모범을 충실히 따르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와 아들을 처형하기까지 한 매우 사나운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모범, 부활을 통한 변화된 삶을 강조하는 대신에, 그는 신조를 강조하였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신앙의 표현을 강조하였다.

5)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 멤버십으로 가입하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세밀한 연구조사 자료로 Alan Kreider의 *The Change of Conversion*을 보라.

6) 콘스탄티누스의 전기를 읽고자 한다면, William Smith가 편집한 *A Dictionary of Christian Biography*, 1권 (New York: AMS Press, 1974)의 623~649페이지를 보라.

얼마 후에,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⁷⁾라는 신학자가 역사의 무대에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초대 교회사에서 최고의 신학자라고 부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및 기독교 신앙에 대해 첫 번째 제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가 살던 시대에 만들어진 사도신경(Apostles' Creed)은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이 빠져 있다. “예수(Jesus)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고백 대신에,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Christ's Death)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고 말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7)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와 신학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Erwin Fahlbusch가 편집한 *The Encyclopedia of Christianity* 1권 (Grand Rapids, Mich.: Eerdmans Publishing, 1999)의 159~165페이지를 보라.

사람들은 아기들이 죄인으로 태어나며, 인간들은 선을 행할 수 없고, 천국에 가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믿기 시작했다. 교회의 성례전과 예식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 약 천 년 동안 교회의 사제들, 주교들, 교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및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예수의 전체적인 삶을 가르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도덕적 수준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주후 1,200년과 1,50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몸에 대한 교회의 이해에 뭔가 단단히 잘 못된 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철저히 공부했던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그중 한 사람이었다. 스위스의 목사였던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교회개혁을 외치기 시작하였다.

특히 루터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다면서 면죄

부를 판매하고, 선행을 근거로 연옥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제들과 주교들의 관행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되돌아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공개 토론을 이끌어내고자 95개조의 반박문(95개의 논제)을 독일 비텐베르크(Wittenberg) 성당 문에 게시해 놓았다. 이 반박문을 성당 문에 못 박아 놓았던 것이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⁸⁾

처음에 루터와 츠빙글리는 예수를 개인적인 구세주요 주인으로 받아들인 성숙한 어른들이 모인 것으로 교회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실천을 위한 유일한 권위로서 성경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불행히도 그들의 구원관은 거

8) John D. Roth, *Stories: How Mennonites Came to Be* (Scottsdale, Pa.: Herald Press, 2006). 교회개혁과 관련된 revolt, reform, and renewal과 같은 용어를 위해 2장을 살펴보자.

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됨으로써 영생을 얻기 위한 것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구원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공동체 안에 서로 속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울리히 츠빙글리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였던 콘라드 그레벨(Conrad Grebel), 펠릭스 만츠(Felix Manz), 조지 블라우락(George Blaurock)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성경연구를 지속하고자 함께 모임을 가졌다. 한스 후트(Hans Hut), 한스 덴크(Hans Denck) 그리고 필그림 마펙(Pilgrim Marpeck)이 독일 남부 지방에서 비슷한 여정을 시작하였다.

한편 몇년 뒤의 일이지만 메노 시몬스(Menno Simons)라는 가톨릭 사제가 변화를 받은 후, 네덜란드에서 생겨나는 재세례신자들의 그룹을 돕게 되었다.⁹⁾

9) 재세례신앙 운동(Anabaptism)의 여러 다양한 흐름

성경연구와 더불어, 이들 초기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강한 믿음을 소유한 신자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및 그의 첫 번째 제자들이 살았던 모습으로 모든 기준 및 틀을 되돌려놓았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히브리서 12:2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지표가 되었다. 메노 시몬스는 고린도전서 3:11절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 말씀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마태복음 5~7장의 산상수훈이 그들이 말하는 제자도에 대한 이해의 핵심과 기준이 되었다.

재세례신자들은 사도신경과 루터 및 츠빙글리가 했던 설교의 많은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들은 ‘믿음에 의

을 이해하기 위해, C. Arnold Snyder의 *Anabaptist History and Theology* (Kitchener, Ont.: Pandora Press, 1997)를 보라.

한 성화'라는 표현보다 '다시 태어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아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가능한 구원이 한 사람의 도덕, 사회 및 경제생활에도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당신이 초기 재세례신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처럼 “예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시다!”라고 대답하였을 것이다.

1. 예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따라오도록 요구하신다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이란 신조를 받아들이거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제자도이다! 이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16세기 아나뱃티스트 리더였던 한스 덴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참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¹⁰⁾고 표현함으로써 제자도를 설명하였다.

불행히도 루터가 이해했던 것처럼 많은 크리스천들은

10) 재세례신자들에게 중요했던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는 Walter Klaassen이 편집한 *Anabaptism in Outline*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1)을 보라.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희망이 없는 죄인으로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다. 구원 이후의 삶도 크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다고 여기고 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용서를 받았을 뿐이지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들은 비록 인생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는 전혀 변화하지 않더라도, 구원을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변하셨다고 추측한다.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에게 구원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뒤로하고 예수와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생각과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 원수들과의 관계에서조차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성찬식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단지 그들을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삶의 모범으로 살아계심을 강조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악의 세력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믿는다. 예수의 처음 제자들, 그리고 16 세기의 재세례신자들과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중심이십니다!”라는 삶의 모습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관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은 소위 말해 ‘절대적인’ 성경을 갖고 있다. 그들은 모세에 의해 해석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만큼 권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성경에 대해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의 중요성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관점을 갖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입장을 위해 주로 구약을 근거로 삼으며, 십계명을 개인 윤리로 받아들이곤 한다. 성경을 바라보는 이러한 방식은 전쟁, 사형제도 및 사회적 불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구약을 인용하기도 한다.

한편 어떤 크리스천들은 신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들은 성경구절이 제시하는 특정한 시간과 신의 섭리를 알 필요가 있다. 불행하게도 세대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성경이해 접근방

식은 산상수훈이나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의 재림 이후에 복종하면 되는 내용이라고 잘못 인도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현재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삶의 부분에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

초기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에게서 우리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의 영 안에서 읽히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전의 가르침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너희가 ……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치셨다. 또한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보기이시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라며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엄격한 문자주의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모든 성경을 예수의 영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기록된 말씀과 예수의 영은 창조적인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크리스천들은 성령보다 기록된 문자를 더 높이 평가하거나, 말씀보다 성령을 더 높이는 식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말씀과 성경은 언제나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¹¹⁾

예수님은 성경 말씀 위에 계신 주님이시다. 물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궁극적인 정보의 원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충분한 계시이며 일상생활의 최종적인 권위이다. 이러한 이해로 인해 아나

11) 위의 책 pp/ 23~24, 72~73 and 140

백티스트 크리스천들은 근본적인 인도하심과 윤리적 근거를 구약의 율법에서 찾지 않고 예수에게서 찾는다. 피터 켈러(Peter Kehler)라는 선교사는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소개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¹²⁾

만약 우리들에게 어떤 윤리적 질문이 던져지면, 그것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을 먼저 살펴야 하며,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배경과 이해를 제공하는 다른 성경구절을 살펴야 한다. 만약 성경 안의 두 구절이 서로 상충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으로 세운다.

12) 피터 켈러는 선교사로 1959~1975년 그리고 1991~1993년 동안 대만에서 사역하였다.

3.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Savior)이자 주님(Lord)이시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원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만, 매일의 주님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신들의 윗사람인 사장, 시민 리더, 군사령관, 혹은 대통령에게 복종한다.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루터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최종 권위가 정부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리더나 정치지도자들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 우리에게 똑같이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악을 다스리고 선을 행하도록 세속 정부를 위임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제자도가 허용하는 한

도 내에서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로마황제인 가이사의 명령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합니다.”라고 반응해야 한다.¹³⁾

우리가 정부에 충성해야 한다고 할 때, 이것이 말하는 바는 정부가 무슨 명령을 해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맹목적 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최고의 권위와 충성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만약 정부가 예수의 가르침과 성령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다. 우리가 불복종할 때, 우리는 정부의 처벌을 감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 정치적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은 John H. Redekop의 『하나님 주권 아래의 정치 *Politics Under God*』 (Herald Press, 2007)를 참고하라.

1. 일상생활에서 예수를 따르라.
2. 예수의 영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라.
3.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충성을 약속하라.

예수는 믿음의 중심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크리스천인가?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다

Community is the Center of Our Lives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는 강한 소속감을 갖기 원하셨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 중 하나는 공동체를 형성하신 일이다. 그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초대하셨고, 곧 요한과 야고보를 초대하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자, 그들 중에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다. 그들은 오순절에 교회라고 칭해지는 새로운 사회의

핵심 구성원이 되기까지 함께 배우고, 함께 먹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았다. 최초의 신자들은 (전체 교회가 모였던)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로 혹은 소 그룹으로) 그들의 가정에서 ‘날마다 모여’,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의 선한 뜻을 기뻐’하였다.(사도행전 2:46~47)

신약성경의 교회는 이러한 믿음과 소속이라는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교제하였다. 집에서 모였을 때 그들은 좀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하였지만, 교회 전체가 모였을 때는 중요한 것을 가르치며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교회 전체만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만약 당신이 예수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틀림 없이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지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불행히도 콘스탄티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교회의 본질이 변하게 되었다. 성경공부, 나눔과 기도를 위해 모였던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는 대신에, 콘스탄티누스는 건물과 조직을 필요로 하는 대교회, 즉 전체 모임만을 강조하였다. 로마인들이 그들의 신을 위해 신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콘스탄티누스는 자기 어머니의 도움과 격려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과 일하셨던 유적지들을 찾아 이방 신전을 대신하는 대규모 성당을 건축하였다. 결국 이러한 건축적 개념으로서의 교회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이 건축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과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해내기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는 ‘알곡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를 말하면서 그리스도

의 몸으로서 사람들을 강조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미사의 포도주와 빵을 강조했다. 결국 대규모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 경험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성례전적 신앙이 발달하게 되었다. 원죄를 씻음받기 위해 사람들은 세례의 예식이 필요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신자들은 미사가 필요했다. 연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사람들은 교회가 발행한 면죄부를 필요로 하였고, 성인들의 기도를 받아야 했다.

그리스도께 속하거나 교회 소그룹을 통해 경험되는 공동체의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세상을 거스르는 대안문화로서의 교회 대신에, 세상과 교회 간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신자들의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 대신에, 정부를 대변하는 변호인이 되거나 정부의 행사를 인도하는 성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수도사나 수녀가 되어야 했다. 소그룹 공동체를 경험하는 공동생활은 수도원이나 수녀원 안에서

만 가능하게 되었으며,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거나 공동체에 속해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마르틴 루터와 다른 개혁가들은 원래 성경적 가르침을 기본으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다. 그들은 로마의 독재적인 권력가들과 자신들이 다르다고 생각했고,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교회를 추구했다. 그들은 성인세례와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라는 성경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서, 루터와 츠빙글리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횡행하던 잔인한 농로제도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혼돈을 야기했고 약 100,000명의 희생자를 내게 된 농민전쟁(the Peasant's War)을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서를 회복하려 했던 루터와 츠빙글리는 통치자들의 편에 서게 되었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많은 농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농민전쟁과 다른 문제들로 인해 루터와 츠빙글리는 그

들이 원했던 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조직을 위해서는 콘스탄티누스의 방식으로, 신학을 위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은 교회의 정책이 국가교회의 모습으로, 교회의 구조가 '대성당'의 모습으로, 교회의 예식이 유아세례로, 교회의 훈련이 정부를 위한 권력 및 무력 사용의 도구로 되돌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신학에 있어서 그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회심 이후라 할 지라도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인간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존재로 태어난다고 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지속해 나갔다.

메노 시몬스를 포함한 초기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루터와 츠빙글리가 변화된 신자들로 구성된 독립교회를 이루겠다는 자신들의 원래 비전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었다.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단순히 콘스탄티누스가 제시한 정치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한 신학으로 되돌아가는 교회개혁을 원한 것이 아니라,

아예 신약성경이 제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restore)하려고 시도했다.

박해로 인해, 초기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성경공부, 나눔과 기도를 위해 가정에서 모임을 가져야 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초기 아나뱃티스트들은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했으며, 기쁨과 신실함으로 함께 성찬을 나누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선생님, 구세주, 주님으로 믿게 되자, 그들은 강한 소속감을 갖는 구체적인 회중을 이루도록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

다른 개혁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단순히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뚜렷한 변화의 삶을 사는 능력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용서는 단순히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존재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주의 만찬을 함께 먹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형제, 자매로부터 용서받음을

나누는 교제의 경험이 되었다.

루터가 거룩함에 대한 그 어떤 개념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던 반면, 초기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리더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멤버가 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였다. 그들에게 신실한 크리스천들이란 자신의 죄의 길에서 떠나, 아주 수준 높은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사람들이어야 했다. 변화된 삶만이 성령을 드러내고 구원을 충족시킨다고 믿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헌신은 무효이며,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믿었다.

초기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그들 스스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였고 그들이 모이는 소그룹에서 성령의 임재 하심을 느끼며 서로에게 조언을 주고받았다. 작지만 이러한 성령 충만한 성경공부 그룹들 안에서 그들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자 서로를 도전하였고, 결국 세상을

대적하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자라게 되었다.

재세례신자들의 구원관과 교회관은 일반적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리더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모진 핍박을 받았다. 4,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려던 대가로 참수형, 화형, 수장형 등 여러 방식으로 순교를 당했다.¹⁴⁾

초기 몇 년 동안, 아나뱃티스트 운동은 여러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을 좀 더 강조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독일의 뮌스터에 있었던 한 그룹은 자신들의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 열두 명의 장로들로 의회를 구성한 후 한 도시를 세웠고, 일부다처제를 시도하였고, 새로운 화폐를 통용하기도 하였다. 비극과 피의 결말을 불러왔던 이러한 소수파들이 취했던 강조점들은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에게 아주

14) John Roth, *Stories: How Mennonites Came to Be* (Scottsdale, Pa.: Herald Press, 2006) 제4장.

부정적인 평판을 갖게 만든 사건들이 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초기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유지해나갔는지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그들의 분별력, 그리고 서로 돕고자 하는 강력한 후원에 대한 그들의 분별력은 자신들에게 적대감을 표시하는 세상 속에서 헌신된 윤리적 대안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만약 당신이 이 초기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지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현재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다음 세 가지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해하고 실천한다.

1. 용서는 항상 필요한 것이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반드시 실천해야만 한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셋이신(three-in-one) 공동체로 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역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가 서로 화해할 때 이루어진다. 공동체의 따스함을 느끼며, 공동체가 가진 유익을 충분히 맛보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회개와 용서를 늘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인류의 문제 중 심각한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 부족한 교육, 혹은 권력의 부재도 아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가 시작된 그 처음부터, 개인적으로든 그룹으로든 사람들은 교만, 자기중심, 불순종 등으로 하나님 및 서

로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우리의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깨뜨렸고, 우리 내면의 중심에 있는 자아와 전 세상에 존재하는 관계를 훼손시켰다.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용서는 단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대개 상황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은 한쪽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일어난다. 죄의 고백과 용서는 하나님과 서로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무너뜨린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바램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조화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고백과 용서는 대체로 세속사회에서 쉽게 무시되고 있다. 부정과 방어가 너무나도 자주 정직한 고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서함 없이 쉽게 일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시도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2.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훈련받은 사제, 목사, 강사들만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생각은 일반 멤버들이 성경공부를 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록 거기에 성령이 함께하시지만, 개인들이 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불행히도 너무나 자주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결과를 보여 왔다.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함과 동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가 함께 소그룹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총회로 모여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적용하기 쉽게 될 것이다.

3. 교회는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

교회는 종종 두 날개를 가진 새로 묘사되기도 한다. 한 쪽 날개는 대그룹으로 전체 회중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져야 하는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며, 또 다른 한쪽 날개는 소그룹으로 교회의 멤버들이 갖는 수평적 관계를 강조한다.¹⁵⁾ 회중은 이러한 대그룹과 소그룹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교회가 대교회만을 강조하는 동안, 재세례신자들은 필요한 경험을 통해 소그룹으로 모여 왔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신학이 강조하는 형태로 자신들의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메노 시몬스와 같은 리더들은 소그룹을 통해 교회 네트워크를 연결시켰다. 현재에도 대부분의 건강한 회중들은 건강한 소그룹들의 네

15) Palmer Becker, *Called to Care and Called to Equip*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93)

트위크로 되어 있다.¹⁶⁾

만약 교회가 우리의 의견을 주고받는 장소라면, 우리는 소그룹에서 이러한 것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다. 만약 교회가 교제와 격려를 경험하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또한 이러한 것을 서로를 잘 아는 12명이나 그보다 작은 소그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 만약 교회가 서로의 의사를 분변해주고 함께 섬기는 일을 시행하려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공동체로서 소그룹 안에서 이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전체 회중이 아니라, 이 소그룹을 교회의 기본 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개인 혹은 회중을 교회의 기본 단위로 본다. 반대로 초대교회나 초기 메노나이트들은 소그룹이라는 환경 속에서 교회를 경험하였다. 메노 시몬스와 같은

16) William A. Beckham, *The Second Reformation: Reshaping the Church for the 21st Century* (Houston, Tex.: Touch Outreach Ministries, 1998) pp. 25~26. 빌 벅햄(/윌리엄 벅킴)의 제 2의 종교개혁, NCD 출판.

리더들은 이러한 소그룹을 서로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게 도왔다. 현재 전 세계의 많은 건강한 교회들은 12명 혹은 그 이하로 구성된 소그룹이 교회를 이루는 최소단위라고 이해하고 있다.

초기 메노나이트 크리스천들에게서 우리는 소그룹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쉽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을 교회에서 찾고자 한다면, 주일학교, 주중(週中)의 소그룹 모임, 혹은 봉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교회에서 이러한 교제를 경험하며 기도와 나눔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잘 아는 열두 명 혹은 그 이하로 구성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의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봉사의 일을 함께하려 한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들인 소그룹이 최고의 장소가 될 것이다.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다음의 사항에 더 많은 관

심을 갖는다.

1. 공동체에 활력을 주는 것으로서의 용서
2. 성경을 해석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3. 교회의 생명을 부여하는 기본으로서의 소그룹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다.” 당신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인가?

화해는 우리 사역의 중심이다

초기 크리스천들에게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believing)과, 교회에 속하는 것(belonging)과,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behaving)이 모두 섞인 모습이였다.¹⁷⁾ 예수는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며, 그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려고 오

17) Palmer Becker, Alan Kreider, *The Change of Conversion*, pp. xiv-xvi

셨다. 초기 제자들은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마태복음 18장에 제시된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서로의 감정을 해칠 수 있음을 아시고 서로 일정한 단계를 거쳐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 감정이 악화되었을 때, 일대일로 서로에게 다가가야만 한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 단계를 취해야 한다.

산상수훈(마태복음 5~7)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보여주어야 할 행동지침을 제시하셨다.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참된 평화는 진리를 알고,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마태복음 5:43~48)

그의 사역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복음 20:21).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18~20)고 하셨습니다.

초기 신자들은 그들의 생각, 관계 및 행동의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일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일어났고, 소그룹에 속함으로써 일어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일어났다. 처음 250년 동안 그들은 전쟁에 관여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새로운 명령과 원수들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이해하고 있었다. 예수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가르치셨다.

사도 바울은 초기 크리스천들을 화해 및 평화의 사신들이라고 보았으며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고린도후서 5:18)라고 말하였다. 만약 우리가 초기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묻는다면,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서로 화해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중심입니다!”라고 말하였을 것이다.

불행히도 콘스탄티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전통이 변하게 되었다. 콘스탄티누스 자신은 기독교를 인정하고 크리스천 사제들을 자신의 관료로 삼았지만, 자신의 신념, 소속감,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전체 군대를 강가로 이끌고 가서 세례를 주는 행진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생활 속의 신념과 관계와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 및 사람들과 화해를 추구하는 대신에, 그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그들을 정복해 나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술 취함, 방탕함, 도박, 음란 등 개인적인 도덕 행위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

다. 비록 전쟁은 예수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믿었는데도, 그는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로운 전쟁 이론(정당전쟁이론, Just War Theory)’을 고안해냈다. 정의로운 전쟁이란, 만약 그 전쟁의 원인이 정당하다면, 만약 그 전쟁이 방어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면, 크리스천들이 전쟁에 참여하여 싸워도 좋다고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들어놓은 정당한 전쟁 이론을 고수하고 있다.

신학적으로 루터, 츠빙글리, 칼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들은 개인적 용서, 십계명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였고, 정당전쟁이론을 받아들였다. 비록 그들에 의해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러한 주류 개혁가들에 의해 교회의 철저한 변화가 이루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불행히도 종교개혁 시기에 살았던 크리스천들의 행동과 비기독교인의 행동에는 차이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메노 시몬스의 리더십 아래에 있었던 초기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와 맺은 개인적 관계,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의 복종을 통해, 한 사람의 행동이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평화와 서로간의 평화, 그리고 싸우기를 원치 않았던 원수들과의 평화를 강조하였다. 성령의 검, 성경말씀은 그들이 갖고 있던 유일한 무기였다.

운동의 형식적인 면을 고려해볼 때, 재세례신앙 운동은 16세기에 있었던 성령운동이었다.¹⁸⁾ 아나뱃티스트 리더들은 다른 개혁가들보다 성령에 대해 더욱더 많은 강조점을 두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그들을 더욱 능력 있게 하시며 새로운 신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하신다고 믿었다.

재세례신앙 운동은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복음주의

18) Walter Klaassen, *Living at the Ages*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2) 6장, "The Age of the Spirit."

운동이었다. 복음주의적 열정을 갖고, 중요한 리더들이 사람들에게 화해의 복음을 들고 유럽을 순회하였다.¹⁹⁾

재세례신앙 운동은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운동이기도 했다. 리더들은 경제적·사회적 관심사들에 대해 설교하였고, 농노제도의 전제적인 성향에 대해 혁명을 일으켰던 농민들의 편에 서서 진리를 외쳤다.²⁰⁾ 결과적으로 재세례신앙 운동은 수많은 농민들을 얻었고 유럽 전역에 수많은 회중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성경 공부와 삶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폭력은 잘못된 것이라는 믿음에 이르렀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서구문명이 요구하는 바와 상관없이 군대에 합류하기를

19) HyoungMin Kim, *Sixteenth-Century Anabaptist Evangelism* (Ann Arbor, Mich.: ProQuest, 2002)

20) 정의 및 사회운동의 주제와 제자도를 어떻게 연관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현 시대의 적용을 위해 Ronald J. Sider, *I Am Not a Social Activist* (Scottsdale, Pa.: Herald Press, 2008)를 보라.

거절하였다.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기보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던”(베드로전서 2:23)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선택하며 살았다.

만약 당신이 메노 시몬스와 다른 수많은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묻는다면, 그들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서로 화해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중심입니다!”라고 말하였을 것이다.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다음의 세 가지 독특한 방식으로 삶을 인도받고 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그의 몸에 속하며,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에 의해 마음과 정신이 철저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하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제시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며,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도록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한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만큼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²¹⁾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친구관계, 그리고 우리 삶의 방법에 변화를 일으킨다. 상처를 입었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와 상황은 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세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살도록 해줄 것이다.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사회적 삶의 영역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및 우리 서로가 갖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 변화될 것이다.

21) Samuel Shoemaker, *How to Become a Christian* (New York, N.Y.: Harper and Row, 1953), p.71.

2. 변화된 사람들은 “화해를 생각한다”

변화된 사람들은 ‘화해를 생각하며’ 화해의 사역에 자신을 연루시킨다. 크리스천들 중 어떤 사람들은 복음주의를 그들 사역의 중심에 놓고, 어떤 사람들은 평화와 사회정의를 그들 사역의 중심에 놓는다. 복음의 이 두 중요한 부분으로서 평화와 사회정의를 화해라는 개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골로새서 1:20)시키고자 하시는 것이다.

만약 이웃, 동료, 가족 구성원들 중 하나님과 갈등 상황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한쪽 편을 들거나 혹은 또 다른 편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화해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양측이 정직하게 고백하고, 서로의 목소리

를 주의 깊게 경청하며, 이타적으로 용서하고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을 뜻한다.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성, 인종, 국가 등,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관계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역의 중심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돕는 것 같지만, 그보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3. 변화된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일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제자들로서,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악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싸워야 한다. 예수는 총과 폭탄이 아니라, 말씀과 감정과 비폭력적 행동을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영과 모범을 본받아야 한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이 지고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의 “태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같아야만 한다.”(빌립보서 2:5) 여전히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이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닙니다.(고린도후서 10:3~4)”라고 말해야 한다.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전쟁이나 폭력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관점이다. 전쟁이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때려 부수라고 가르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되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중요한 권위에 의해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방식을 거절해야 한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는다는 것은 역사와 경험이 가르치고 있다. 폭력은 단지 비폭력에 의해서만 줄어들 수 있으며, 정의롭지 못한 것을 바로잡을 때에만 줄어들 수 있다.

불행히도 콘스탄티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따르는 수백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화해와 평화의 사신으로 살기보다는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데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만 한다. 이러한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스가랴 4:6) 요약하자면,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다음의 사항을 믿는다.

1. 회심은 변화된 삶으로 인도한다.
2. 그들은 “화해를 생각한다.”
3. 그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평화를 위해 일해야만 한다.

“화해는 사역의 중심이었다.” 당신은 화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인가?

결론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양심의 자유, 교회와 국가의 분리, 민주주의의 본질이 되는 종교의 자유 등 중요한 원리들은 종교개혁 시대의 재세례신앙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기독교 세계에 이러한 원리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언하였고, 이러한 원리들을 실행에 옮기도록 도전하였다.²²⁾

22) *The Recovery of the Anabaptist Vision*, edited by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 책에서 나는 아나뱃티스트 관점으로 본 기독교 신앙의 핵심가치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했다. 현 기독교의 문제는 교단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려들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크리스천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신조의 중요성, 정부에 참여하는 방식 등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다른 배경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아나뱃티스트 전통으로부터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법,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모든 근거를 두는 삶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음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

Guy, F. Hurshberger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57), pp. 29~30. 이 책은 재세례신앙 운동의 신학과 시작에 관련된 풍부한 논문들이 실려 있다.

제 1 핵심내용:

예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시다

- _ 나의 눈은 내 신앙의 저자이시며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었다.
- _ 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 _ 나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 기독교는 제자도이다.

제 2 핵심내용: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다

- _ 나는 공동체에서 용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는다.
- _ 나는 우리 시대 속에서 성령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한다.
- _ 나는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제3 핵심내용:

화해는 우리 사역의 중심이다

- _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돕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 _ 나는 화해를 통해 복음전도와 평화건설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 _ 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거부하며 전쟁과 다른 형태의 갈등에 대해 평화적인 대안들을 적극 권장한다.

토론을 위한 질문들과 관점들

제1 핵심내용 예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히브리서 12:2)

많은 크리스천들이 강조하는 것들	아나뱃티스트들이 강조하는 것들
<p>1. 그리스도의 죽음</p> <p>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에 많은 관심과 초점을 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적절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한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이다.</p>	<p>1. 그리스도의 삶</p> <p>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용서하시는 은혜를 확신하면서도, 예수의 말씀, 사역 및 성령 그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다.</p>
<p>질문: “기독교는 제자도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가?</p>	

<p>2. 절대적인 성경</p> <p>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최종적인 권위를 두기보다는 성경에 최종적인 권위를 둔다. 일상생활을 위한 지침은 그 상황에 합당한 다양한 성경에서 찾는다. 모든 결정이 예수의 가르침과 정신에 꼭 들어맞아야 할 필요는 없다.</p>	<p>2.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p> <p>아나뱃티스트들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임을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임을 믿는다. 의사결정을 할 때 최종 권위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셨고 개인적·사회적 윤리의 표준이라고 믿는다.</p>
<p>절대적인 성경과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설명해 보라.</p>	
<p>3. 최종적 권위: 정부</p> <p>많은 크리스천들은 정부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기 때문에 비록 예수의 가르침과 어긋나더라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정부에 의해 주어지면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p>	<p>3. 최종적 권위: 예수 그리스도</p> <p>아나뱃티스트들은 정부가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것을 인정하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한도 내에서 충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정부의 요구들이 예수의 주되심을 결코 능가할 수는 없다.</p>
<p>질문 :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이 당신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p>	

제 2 핵심내용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다

날마다 한마음으로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사도행전 2:46~47)

많은 크리스천들이 강조하는 것들	아나뱃티스트들이 강조하는 것들
<p>1. 수직적인 용서</p> <p>많은 크리스천들은 신자들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용서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직적인 용서를 강조한다. 용서는 개인적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p>	<p>1. 수평적인 용서</p> <p>크리스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직적인 용서와 신자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수평적인 용서를 모두 필요로 한다. 용서는 서로가 평화로운 관계를 경험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이다.</p>
<p>질문 : 용서가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p>	

<p>2. 개인적 성경해석</p> <p>중세시대의 교회가 교회만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많은 크리스천들은 목회자나 훈련받은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쳐주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방식에 의존한다.</p>	<p>2. 공동의 성경해석</p> <p>아나뱃티스트들은 개인 성경공부는 반드시 그룹 성경공부와 연결되고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룹 멤버들은 예수의 성령 안에서 권고 및 협의를 주고받을 수 있게 서로 헌신해야 한다.</p>
<p>질문: 당신이 속한 교회에서는 함께 어떠한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는가?</p>	
<p>3. 예배당에서 모임</p> <p>많은 크리스천들은 예배하는 회중을 교회의 기본단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는 하나의 조직, 기관 혹은 주일 아침모임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p>	<p>3. 소그룹 안에서 모임</p> <p>아나뱃티스트들은 교회를 가족으로 본다. 많은 건강한 교회들은 교제, 성경공부, 기도 및 나눔의 소그룹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이룬다.</p>
<p>질문 : 소그룹들이 교회의 기본단위라는 점에 동의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변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가?</p>	

제 3 핵심내용 화해는 우리 사역의 중심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11~21)

많은 크리스천들이 강조하는 것들	아나뱃티스트들이 강조하는 것들
<p>1.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됨</p> <p>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회생을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회심이란 죄의 용서와 천국에 가는 것을 뜻한다.</p>	<p>1. 생활의 변화</p> <p>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들은 사랑, 돌봄, 양육의 하나님과 마음, 영, 행동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모두 강조한다. 회심은 믿음, 소속감, 행동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p>
<p>질문 : 하나님의 이러한 두 측면이 똑같이 중요한가? 당신은 어느 측면을 더 강조하는가?</p>	

<p>2. 개인적 구원</p> <p>많은 크리스천들은 용서를 개인적인 용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평화건설과 사회활동은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부가적인 활동이라고 여긴다.</p>	<p>2. 평화건설과 사회정의</p> <p>아나뱃티스트들은 용서와 화해를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용어로 이해하고 있다. 복음 전도와 평화건설은 '화해'라는 용어 안에서 하나가 된다.</p>
<p>질문 : 마태복음 18장이 제시하는 화해 및 중재를 위한 단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p>	
<p>3. 군복무(military service)</p> <p>많은 크리스천들은 정부가 요구한다면 예수의 가르침과 양심에 반대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권위에 복종한다. 그들은 약자를 '구하는 폭력'과 '정당한' 전쟁이론을 믿고 따른다. 따라서 정부가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면, 그들은 기꺼이 폭력을 사용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p>	<p>3. 대체복무(alternative service)</p> <p>아나뱃티스트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들은 폭력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것이며, 평화를 위해서라면 정부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것이다. 대체복무는 사회 변화 및 정의를 위한 것으로 군복무 대신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p>
<p>질문 : 군복무 대신에 평화를 만드는 대체복무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p>	

읽을 자료

Bender, Harold S., *The Anabaptist Vision*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44)

Blough, Neal, *Christ in Our Midst: Incarnation, Church and Discipleship in the Theology of Pilgram Marpeck* (Kitchener, Ont.: Pandora Press: 2007)

Confession of Faith in a Mennonite Perspective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95)

Drescher, John M., *Why I am a Conscientious Objector* (Morgantown, Pa.: Herald Press, 1957)

Hersheberger, Guy., ed., *The Recovery of the Anabaptist Vision*,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57)

Klaassen, Walter, *Anabaptism in Outline*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1)

Kreider, Alan, *The Change of Conversion and the Origin of Christendom* (Eugene, Ore.,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9)

Neufeld, Alfred, *What We Believe Together* (Intercourse, Pa.: Good Books,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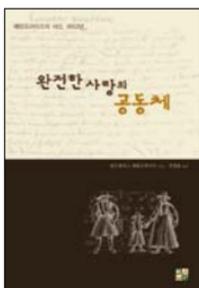
Roth, John D., *Stories: How Mennonites Came to Be* (Scottsdale, Pa.: Herald Press, 2006).

Snyder, C. Arnold, *Anabaptist History and Theology* (Kitchener, Ont.: Pandora Press, 1997)

Snyder, C. Arnold, *From the Anabaptist Seed* (Kitchener, Ont.: Pandora Press, 1999)

【공동체 시리즈】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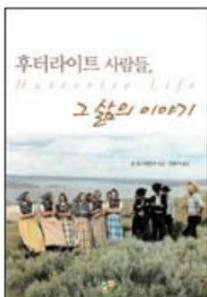
후터라이트 형제들의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아스 에렌프라이즈는 백년 전 야콥 후터와 피터 리더만에 버금가는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이 책은 자신이 세상에서 분리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자랑하고 생각하는 모

든 사람들(특히 메노나이트, 스위스 형제들 외)에게 보낸 서신이였다. 에렌프라이즈는 여기서 교회가 그 목적인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제자들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재산공유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확신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는 자신의 편지와 글들 가운데 거듭해서 이 원리에 호소하고 있다.

(안드레아스 에렌프라이즈 지음/전영표 옮김)

후터라이트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후터라이트는 온갖 박해와 역경 속에서도 450년 동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했던 성경적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 공동체다.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채 살아가지만 결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며,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개개인들이 결코 먹을 것과 입을 것, 집과 노후 대책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후터라이트 사람들의 삶을 소개한다. (존 A. 호스테들러 지음/ 김복기 옮김)

평화교회는 가능한가?



기독교의 평화주의 전통을 되새겨보며 평화를 위한 교회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책. 오늘날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평화의 관점을 재조명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알렌 & 엘레노르 크라이더 지음/고영목·김경중 옮김)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역사



후터라이트 형제단의 역사는 종교적 관심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경건함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가장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후터라이트 역사에 대해 기록한 이 책은 후터라이트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역사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하며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하며 자신들의 역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

(존 호퍼 지음 김복기 옮김)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 책은 성경적 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비전의 핵심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교회 생활에 필요한 귀한 자료를 원하는 소그룹 모임이나, 지도자들, 든든한 기초를 쌓고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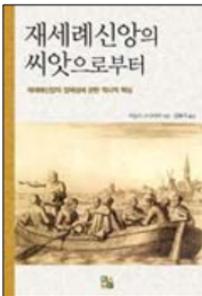
(월프레드 화러 지음/ 김복기 옮김)

초대 교회의 예배와 전도



초대교회 시대에 행해졌던 예배와 전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성경적, 실천적 그리고 역사적 탐구를 시도한 책. 초대 교회의 예배와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선명하고도 생생하게 그려냈고, 오늘날 전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알렌 크라이더 지음/허현 옮김)

【재세례신앙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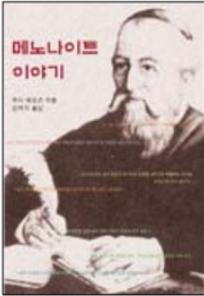


재세례신앙의 씨앗으로부터

재세례신앙의 역사적 교훈과 실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이 책은 재세례신앙 운동의 정체성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재세례신앙 운동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전 세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신앙 교류의 출발점이 되리라는 바람에서 기획되었다.

(아놀드 스나이더 지음/김복기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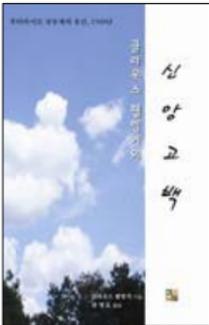
메노나이트 이야기



믿음과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 16세기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교회가 생긴 이래부터 현재까지 그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고난을 선택했던 그 삶을 이해할 수 있다.

(루디 배르근 지음/김복기 옮김)

클라우스 펠빙거의 신앙고백



수많은 후터라이트 순교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펠빙거는 자신과 공동체가 믿는 진리를 생명을 바쳐 증언했다. 그는 짧은 생을 살았고, 많은 저술이나 빛나는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 작은 신앙고백은 후터라이트 형제들에게 매우 값진 영

적 유산이 되었다.

(클라우스 펠빙거 지음 / 전영표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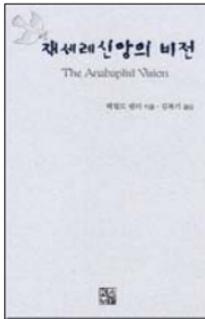
메노나이트 신앙고백



이 책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소개한 신앙고백서다.

(메노나이트 신앙고백 편찬위원회 지음
/ 김경중 옮김)

재세례신앙의 비전



재세례신앙의 비전은 20세기 메노나이트 학자였던 헤럴드 벤더가 1942년 미국 교회에 던졌던 충격적인 연설문이자 논문의 제목이었다. 이 책에서 벤더는 그 동안 개신교의 역사 속에 종교개혁이 어떻게 다시금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영으로 모이는 신실한 제자들을 위한 재세례신앙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헤럴드 벤더 지음 김복기 옮김)

【평화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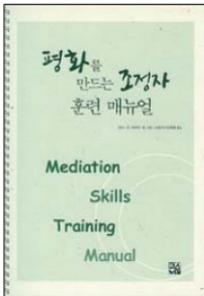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 책은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쓰였지만, 평화와 화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 오늘날의 국내외적 갈등과 분쟁상황에도 매우 유의한 평화와 화해의 기본 안내서가 될 것이다.

(히즈키아스 아세파 지음/이재영 옮김)

평화를 만드는 조정자 훈련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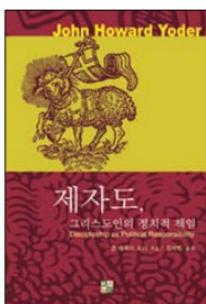


다양한 분쟁상황에서 갈등을 창조적으로 평화롭게 전환시키는 조정자를 훈련하는 매뉴얼. 이 책은 학교, 직장, 교회, 공공영역 등에서의 훈련된 조정자가 부족한 한국 사회에 매우 실질적이고 유의한 훈련 지침서가 될 것이다.

(낸시 굿 사이더 외 지음/서정기·이재영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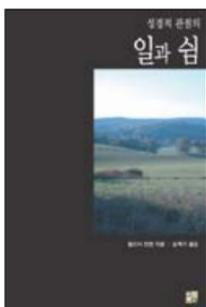
【제자도 시리즈】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



존 하워드 요더는 지난 400여 년 전에 아나뱃티스트를 박해했던 기존 교회들과의 신학적 논쟁을 재개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교회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라는 존 하워드 요더의 초청이며 메노나이트나 메노나이트가 아닌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이 도전을 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다. (존 하워드 요더 지음/김기현 옮김)

성경적 관점의 일과 쉬



이 책은 이러한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묵상 자료로서 일과 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및 기독교적인 입장, 그리고 일과 쉬를 존중하면서 좀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윌드마 잔젠 지음/김복기 옮김)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

지은이 파머 베커

옮긴이 김복기

펴낸이 김정중

펴낸곳 Korea Anabaptist Press

초판 인쇄 2009년 12월 24일

초판 발행 2009년 12월 31일

주소 200-161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20-36

등록 2002년 8월 30일

전화 02) 554-9615

팩스 02) 501-1986 (www.kapbooks.com)

값 6,000원

ISBN : 978-89-92865-06-7 93230

*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